

장애인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에 관한 연구

곽지영 * 진기남 ** 이익섭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는 오랜 기간동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 즉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선입견이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의 생활, 사회적인 적응과 성격 형성 과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반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¹⁾.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장애인의 사회에의 완전한 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분되는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부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석동일, "한국인의 장애자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제4집, 1988, pp. 5-31.

사회적 편견의 불식을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통합 개념을 학교교육의 장에 적용한 것이 통합교육으로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교육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아동을 보통교육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경향에 대한 여러 비판과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상화의 이념에 따라 일반학교를 통한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접촉 빈도가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일반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인식이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변화는 그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분석 평가에 준하여 수정, 보완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접촉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의 변화가 상호이해의 증대와 인식의 변화란 질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에 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접촉 양상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는 성인 이후로 이어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자아 개념 발달과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아동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사회 환경으로의 전환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2. 문헌고찰

여러 학자들²⁾³⁾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이나 장애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장애아동들의 경우는 통합교육을 통해 자신들보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아동들을 모델로 설정하여 적절한 행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아동의 경우,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아동이 장애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편견이 아닌 실제적 이미지를

2) 서봉연, "장애아 통합교육의 방향," 장애아와 유아교육, 새세대육영회, 1986

3) 박승희,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입문," '93 장애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 세미나 자료 II, 1993.

형성할 수 있게되고, 이에 따라 그들을 포용하는 태도가 증대되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Johnson과 Johnson⁴⁾은 단순한 통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며, 도리어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합이전에 형성된 낙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통합교육을 시도할 때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과의 접촉 효과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예측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접촉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학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8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됨을 발견한 연구⁵⁾가 있었고, 장애아동을 일반 학급에 통합시켰을 때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통합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밝힌 연구⁶⁾도 있었다. 한편 국내의 연구들도 장애인과의 접촉정도가 일반아동⁷⁾이나 기업주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⁹⁾¹⁰⁾¹¹⁾.

그러나 장애인과 상당한 접촉을 했던 일반인과 접촉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양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다⁹⁾.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¹⁰⁾¹¹⁾.

-
- 4) D. Johnson & R.T. Johnson, "Integrating Handicapped Student into the Mainstream," Exceptional Children, Vol. 47, 1980, pp. 90-98.
 - 5) A. Handlet & K. Austin, "Improving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Their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Vol. 49, 1980, pp. 228-229.
 - 6) J Rapier, R. Adelson, R Carey & K Croke, "Changes in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Handicapped," Exceptional Children, Vol. 29, 1979, pp. 219-296.
 - 7) 김일명, 점박아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8.
 - 8) 이청자, "장애자 고용에 대한 기업인의 태도조사 연구," 재활연구, Vol. 7, 1981, pp. 63-67.
 - 9) J. Strauch, "Social Contact as a Variable in the Expressed Attitudes of Normal Adolescents Toward EMR Pupils," Exceptional Children, Vol. 36, 1970, pp. 495-500.
 - 10) F. Cole, "Contact as a Determinant of Sighted Person's Attitudes Toward the Blind," Dissertation Abstract, Vol. 31, 1971, pp. 682-683.
 - 11) B.G. Esposito & W.J. Peach,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Vol. 49, 1983, pp. 316-363.

그런데 이러한 상반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가 드러난 이유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측정도구의 문제를 지적하겠다. 기존의 연구는 접촉여부나 빈도와 같은 단순한 지표를 접촉의 측정도구로 이용하였다. 결국 접촉의 내용이나 성격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간과된 것이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접촉 경험의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이는 장애아동의 사회생활에의 적응력을 높여 줄 것이고, 일반아동의 편견을 주려 줄 것이다. 그러나 접촉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하다면, 도리어 부정적 인식의 고착화와 확대 재생산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접촉의 질적인 측면이란 직접적인 접촉이었느냐 혹은 TV,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었느냐, 직접적 접촉이라도 어떠한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장애자와 접촉했느냐 등의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접촉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측정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표본의 차이를 지적하겠다. 위의 연구에서 접촉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된 표본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집단인 반면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연구는 대부분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접촉의 효과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의 연령별로 접촉양상이나 원래의 인식 및 그 유동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접촉효과의 집단간 차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3. 연구가설

앞의 문헌고찰을 통해, 접촉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의 접촉을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여 이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Shibutani¹²⁾는 다양한 집단에 속하고 접촉이 이루어질수록 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Katz와 Lazarsfeld¹³⁾는 태도를 연구하는데 그에 영향을 미친 외부정보가 어느 곳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얻어졌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접촉의 다양성이란 개념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논의를 하였는데, 이 접촉의 다양성이 실제 장애인의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접촉의 다양성이란 개념을 얼마나 다양한 곳으로부터 장애인관련 정보를 얻느냐는 정보습득처의 수, 주위의 어떤 대상과 접촉했었느냐는 접촉경로의 수, 그리

12) T. Shibutani, "Reference Groups and Social Control," In A.M. Rose (eds.),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2, pp. 128-147.

13) E. Katz & P.F.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London: The Free Press, 1955, pp. 175-186.

고 실제로 접촉했던 장애유형의 수로 구분하여 조작화 하였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현실적 평가를 위해, 특수학급 유무와 같은 반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접촉방식이란 변수를 고려하였다. 결국 접촉의 다양성과 접촉방식이란 척도들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 가설 2: 장애인을 주위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 가설 3: 다양한 장애유형에 접했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 가설 4: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자료수집을 위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 국민학교와 없는 학교를 하나씩 선정하여, 19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3학년과 6학년의 2개 반에서 일반아동 154명을 조사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는 3학년과 6학년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반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전부 162명을 조사하였으며, 장애아동이 없는 반도 두 학년에서 각각 하나씩 임의로 선정하여 168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아동은 총 484명이었다.

2. 조사내용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인데, Rosenberg¹⁴⁾의 분류방식을 따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응답자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해 묘사된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태도는 실제적인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태도를 의미한다¹⁵⁾. 정서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8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Siperstein¹⁶⁾

14) M.J. Rosenberg,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3, 1956, p. 367.

15)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나남, 1985, pp. 30-33.

에 의하여 개발된 형용사 척도이다. 서로 대립되는 18개쌍의 형용사를 각기 5점 Likert 척도상의 양쪽에 위치시켰는데, 영리하다, 재미있다, 아름답다, 꼼꼼하다 등의 긍정적 표현에 5점이 주어지고, 미련하다, 재미없다, 추하다, 부주의하다 등의 부정적 표현에 1점이 주어졌다. 정서적 태도는 이 18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서적 태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ronbach α 값이 0.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적 태도는 태도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관념적 지각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17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장애요인척도(Disability Factor Scale)¹⁷⁾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이 쉽게 좌절한다,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장애아동에 대한 평가, 응답자가 장애아동과 친하게 지낸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한다 등의 일반아동 본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들 역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1점이 부정적 태도, 5점이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 17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인지적 태도의 측정값으로 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신뢰도 값은 0.64로 낮았다.

행동적 태도는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의 측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¹⁸⁾에서 사용된 활동선회척도의 9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장애아동과 함께 논다든지, 초대한다 등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였는데, 응답자가 5점 척도 상에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도록 하였다. 행동적 태도는 이 9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들의 신뢰도 값은 0.88로 높았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개의 군으로 구분된다. 첫째 군은 응답자의 성별, 학년, 종교유무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성별은 남자의 범주 값이 1이고, 여자의 범주 값이 0인 모조변수이다. 학년도 2개의 범주만을 갖는 데, 3학년은 0값을, 6학년은 1값을 갖는다. 종교 변수의 경우, 종교가 있다는 경우에 1값을 주고, 없다는 경우에 0값을 주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1=무학,

16) G.N. Siperstein, "Instruments for Measuring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80.

17) J. Siller et al., "Structure of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Studies on Reactions to Disability, Vol. 12, 1967, pp. 5-22.

18) G.N. Siperstein, J.J. Bak, & J. Gottlieb, "Effects of Group Discussion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0, 1977, pp. 131-134.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졸).

두 번째의 변수군은 장애인과의 접촉의 방식이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정보 습득처(Information Source)의 수, 2)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 3) 접촉한 장애유형의 수; 4) 학교에서의 접촉방식. 장애인에 대한 정보습득처의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부모님, 교사, 책, TV, 기타 항목 중에 장애인에 대해 들어 본 곳은 해당하는 데 모두 표시도록 하여 그 수를 합하였다.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는 가족, 친척, 같은 반, 특수 학급, 학교, 이웃, 공공장소, 대중매체들 중에 응답자가 장애인을 직간접으로 접촉할 수 있었던 곳엔 모두 표시도록 하여 그 수의 합을 통해 측정하였다. 접촉한 장애유형의 수는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절단, 소아마비, 뇌성마비 중 응답자가 주위에서 본 경우에 모두 표시도록 하여 그 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 1)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2)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고, 같은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3)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고, 같은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경우. 접촉방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불연속 변수를 모조변수로 전환하였다. 특수학급 유무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와 같은 반에 장애아동의 유무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만들고,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고, 같은 반에 장애아동도 없는 경우는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PC+를 이용한 기술분석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인 접촉방식 및 다양성 정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및 인지적 태도에 이어서 행동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¹⁹⁾, 이 두 변수는 행동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시에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이 두 변수의 추가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19)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범 주	사례수(명)	백분율(%)
학 년 (GRADE)	3학년	232	47.9
	6학년	249	51.5
	무응답	3	0.6
성 별 (SEX)	여자	227	46.9
	남자	255	52.7
	무응답	2	0.4
종교유무 (RELIG)	있다	102	21.1
	없다	379	78.3
	무응답	3	0.6
어머니의 학력 (EDUC2)	국졸	15	3.1
	중졸	76	15.7
	고졸	277	57.2
	대졸	85	17.6
	대학원졸	11	2.3
	무응답	20	4.1

III.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3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했는데, 3학년이 232명(47.9%)이고 6학년이 249명(51.4%)이다(표 1 참조). 성별(SEX)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자가 255명(52.7%)이고, 여자가 227명(46.9%)으로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종교(RELIG)는 있는 경우가 102명(21.1%)인 반면에, 없다는 경우가 379명(78.3%)으로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의 상관관계가 .58로 높기 때문에,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어머니의 학력(EDUC2)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까지의 6개 범주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고졸이 277명(57.2%)으로 제일 많았고, 대졸이 85명(17.6%), 국졸이 15명(3.1%), 대학원 졸이 11명(2.3%)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접촉방식 및 다양성

일반아동들이 장애인에 대해 듣거나 만나 본 접촉방식 및 다양성 정도를 알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 습득처의 수,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 접촉한 장애유형의 수, 학교에서의 접촉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아동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들어보는 출처를 설문조사시 모두 표시도록 해 본 결과, TV 프로그램(87.8%), 교사(31.6%), 부모님(25.8%), 책(19.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TV라는 매스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처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각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한 값을 합해서 만들어진 정보 습득처의 수(NEW1)란 변수는 '전혀 없다'의 0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두 곳에서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204명(32.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 곳을 답한 경우가 175명(24.2%), 네 곳이란 경우가 64명(18.0%), 전혀 없다가 27명(5.6%), 그리고 다섯 곳인 경우가 14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촉경로의 수(NEW2)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친척, 같은 반, 특수 학급, 학교, 이웃, 공공장소,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접촉 경험이 있었으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답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접촉에 301명(62.2%)이 답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장소에서가 178명(36.8%), 이웃에서 43명(31.4%), 응답자의 친척 중에 43명(8.9%),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17명(3.5%)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과의 접촉이 가족, 친척, 이웃 등과 같은 주위의 근접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보습득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과의 직접간접 접촉 경우의 점수를 합하여, 이 총점을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로 간주하였는데, 점수의 범위는 전혀 없다는 0점부터 6점까지였다.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가 두 곳인 경우가 156명(32.2%)으로 제일 많았고, 세 곳에 117명(24.2%), 네 곳에 87명(18%) 등으로 나타나서, 장애인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촉한 장애유형의 수(NEW3)는 다음의 7유형의 장애인과의 접촉 유무를 물어서, 그 합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1) 시각장애; 2) 뇌성마비; 3) 정서장애; 4) 절단; 5) 소아마비; 6) 청각장애; 7) 정신지체. 일반아동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장애유형은 정신지체로, 이를 지적한 응답자가 293명(60.5%)이었고,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 경우가 223명(46.1%), 소아마비에 180명(37.2%), 절단이 129명(26.7%), 정서장애에 115명(23.8%), 뇌성마비가 104명(21.5%), 시각장애가 94명(19.4%)의 순이었다. 이 변수의 값은 0점부터 6점까지 분포하였는데, 접촉

한 장애유형의 수가 둘인 경우가 162명(33.5%)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하나인 경우가 121명(25%), 셋인 경우가 91명(18.8%) 등의 순이었다.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이란 변수는 같은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급이 따로 있는 경우의 세 범주를 갖는데, 장애아동이 같은 반에 없는 경우가 168명(34.7%), 있는 경우가 162명(33.5%), 특수학급에 있는 경우가 154명(31.8%)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태도로 구분하여, 이 각각의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인과의 접촉방식 및 다양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 장애인과의 접촉 관련 변수

변 수	범 주	사례수(명)	백분율(%)
정보습득처의 수 (NEW1)	전혀 없다 2 3 4 5	27 204 175 64 14	5.6 42.1 36.2 13.2 2.9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 (NEW2)	0 1 2 3 4 5 6	2 74 156 117 87 39 9	0.4 15.3 32.2 24.2 17.9 8.1 1.9
장애유형의 수(NEW3)	0 1 2 3 4 5 6 무응답	2 121 162 91 47 35 6 20	0.4 25.0 33.5 18.8 9.7 7.3 1.2 4.1
학교에서의 접촉방식	있다(같은 반) 없다(같은 반) 특수학급	162 168 154	33.5 34.7 31.8

1) 정서적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의 학년(GRADE), 반에 장애아동의 유무(INCLASS)와 특수학급의 유무(SPC) 변수가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응답한 아동의 학년이 낮을 때, 정서적 태도는 긍정적이었다($\beta=-.218$). 반면에 장애아동이 반에 있을 때 혹은 장애아동이 특수학급에 있을 때, 정서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각각 $\beta=-.245$, $\beta=-.158$).

회귀식에 준한 정서적 태도의 기대치(Expected Value)가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에 따른 세 집단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집단 (INCLASS=0, SPC=0)의 정서적 태도점수가 3.04로 가장 긍정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0, SPC=1)의 경우, 태도점수가 2.82이었으며, 특수학급이 없고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1, SPC=0)의 태도 점수가 2.7로써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학교 내에서의 장애아동과의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단순한 학교에서의 통합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인지적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인지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의 학년(GRADE), 어머니의 학력 (EDUC2), 정보습득처의 수(NEW1)와 반에 장애아동의 유무(INCLASS) 변수가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한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beta=-.099$), 이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beta=-.089$).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로 아동의 부모 특히, 양육의 일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아동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학교에서만의 통합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이는 아동과 그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상에 대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지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이 부적(negative) 방향이었다는 결과는 기존의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많을수록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beta=.16$), 장애아동이 같은 반에 있을 때, 인지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beta=-.2$).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장애아동이 단순히 같은 반에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다양했느냐가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의 통합교육이 장애에 대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정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고려된 변수들이 인지적 태도의 변이를 7.5%정도밖에 설명해주지 못해, 그 설명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표 3.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B (S.E.)	Beta	B (S.E.)	Beta
GRADE	-.288*** (.070)	-.218	-.128** (.065)	-.099
SEX	.006 (.064)	.004	.013 (.061)	.010
RELIG	.131 (.077)	.083	.087 (.075)	.055
EDUC2	-.033 (.043)	-.038	-.076* (.040)	-.089
NEW1	.017 (.038)	.023	.117** (.036)	.160
NEW2	.039 (.032)	.076	.003 (.030)	.007
NEW3	-.006 (.024)	-.013	.012 (.023)	.027
INCLASS	-.344*** (.081)	-.245	-.276*** (.078)	-.200
SPC	-.220*** (.089)	-.158	-.083 (.084)	-.060
Constant	3.097		3.540	
R2	.093		.075	
F값	4.650***		3.968**	
R2변화량	-		.248	

*P<.1 **P<.05 ***P<.001

GRADE : 학년(0=3학년, 1=6학년)

SEX : 성별(0=여, 1=남)

RELIG : 종교(0=없다, 1=있다)

EDUC2 : 어머니의 교육수준

NEW1 : 정보습득처의 수

NEW2 : 장애인 접촉경로의 수

NEW3 : 장애유형의 수

INCLASS : 반에 장애아동의 유무

SPC : 특수학급의 유무

중다회귀방법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계산한 인지적 태도의 기대치(Expected Value)가 세 집단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집단(INCLASS=0, SPC=0)의 인지적 태도점수가 3.48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0, SPC=1)이 두 번째로서, 태도점수가 3.39였고,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이 따로 없고,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1, SPC=0)의 인지적 태도점수가 3.19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의 정서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장애아동과의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행동적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장애아동과 함께 논다든지, 초대한다 등의 행동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회귀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응답한 아동이나 학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인 접촉방식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가 1단계에서의 변수들에 추가되어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1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학년(GRADE), 어머니의 학력(EDUC2)과 접촉한 장애유형의 수(NEW3)와 반에 장애아동의 유무(INCLASS)와 특수학급의 유무(SPC) 변수가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응답한 아동의 학년이 낮을 때($\beta=-.349$),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beta=-.133$), 그리고 접촉한 장애유형이 다양할수록($\beta=.095$), 장애아동과 놀이와 같은 사회적 교류를 하겠다는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장애아동이 반에 있을 때 혹은 특수학급에 있을 때, 특수학급도 없으면서 같은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경우보다 행동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각각 $\beta=-.322$, $\beta=-.119$). 이는 장애아동과의 접촉이 정서적 태도나 인지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앞의 결과와 동일하다. 결정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고려된 변수들이 행동적 태도의 변이를 24% 설명해 주었다.

2단계에서는 정서적(AFF) 태도와 인지적 태도(COG)를 독립변수로 추가해서 행동적 태도에 대한 예측모델을 분석하였다. 이 회귀분석 결과, 두 가지 태도가 행동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장애아동에 대해서 정서적 태도나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각각 $\beta=.259$, $\beta=.362$). 이 두 가지 태도 변수를 첨가한 회귀분석의 경우, 그 결정계수의 값이 1단계의 24%에서 두 배가 넘은 48.8%로 24.8%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추가된 두 태도 변수의 설명력이 높다

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동적 태도의 기대치(Expected Value)가 세 집단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집단(INCLASS=0, SPC=0)의 행동적 태도점수의 기대치가 3.48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0, SPC=1)의 태도점수가 3.23으로 두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이 따로 없고,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단(INCLASS=1, SPC=0)의 인지적 태도점수가 2.79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장애아동과의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학년과 어머니의 학력이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한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혹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학년이 낮을 때의 긍정적인 태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리어 부정적으로 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결과는 아동의 태도가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인식형성에 어머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정보 습득처가 다양할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일반아동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접촉한 장애유형이 다양할수록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접촉할수록, 장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접촉한 장애유형이 적으면, 그 한 두 가지 사례에 준하여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일반화의 시도가 이루어지기에 편견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넷째,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에서의 접촉방식은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다른 상황의 아동들에 비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태도 모두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다. 장애아동이 같은 반에 있을 때, 도리어 그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표 4). 장애인에 대한 행동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1 단계		2 단계	
	B (S.E.)	Beta	B (S.E.)	Beta
GRADE	-.712*** (.099)	-.349	-.545*** (.083)	-.267
SEX	-.073 (.090)	-.036	-.078 (.074)	-.038
RELIG	.132 (.110)	.054	.021 (.091)	.009
EDUC2	-.181** (.061)	-.133	-.132** (.050)	-.097
NEW1	.110** (.054)	.095	.052 (.045)	.045
NEW2	.022 (.045)	.028	.010 (.037)	.013
NEW3	.076** (.035)	.102	.070** (.029)	.094
INCLASS	-.696*** (.115)	-.322	-.399*** (.098)	-.184
SPC	-.255** (.127)	-.119	-.122 (.105)	-.057
AFF			.400*** (.063)	.259
COG			.570*** (.063)	.362
Constant	4.089		.839	
R2		.240		.488
F값		14.087		34.699
R2변화량		-		.248

*P<.1 **P<.05 ***P<.001

AFF:정서적 태도 COG:인지적 태도

다섯째, 장애아동과 같이 어울릴 것인가는 행동적 태도는 그들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에 의하여 영향받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통합화되어진 환경이 정상화 원리대로 통합의 목적을 달

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통합화 추진의 전제는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나, 본 연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장애아동의 학교로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정상화의 원리대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아동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 방안과 사회 사업가의 실제적인 중재자로서의 개입 방안,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기로 하겠다. 서 반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없으면서 반에 장애아동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다른 상황의 아동들에 비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태도 모두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다. 장애아동이 같은 반에 있을 때, 도리어 그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다섯째, 장애아동과 같이 어울릴 것인가는 행동적 태도는 그들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에 의하여 영향받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통합화되어진 환경이 정상화 원리대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통합화 추진의 전제는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나, 본 연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장애아동의 학교로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정상화의 원리대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아동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 방안과 사회 사업가의 실제적인 중재자로서의 개입 방안,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기로 하겠다.

우선 일반아동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실천적인 개입 방안을 살펴보면, 일반아동 및 양육 담당자인 어머니의 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예로써 아동과 그 부모 모두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모의 장애를 체험케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 사업가의 실제적인 중재자로서의 개입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학교 사회사업을 시도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사회 사업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아직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일선 교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적인 배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의 서비스로 좀 더 넓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순히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같은 반에 두는 차원의 통합교육은 의미가 없으며, 이들 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질적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율이 일반아동의 경우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장애 아동이 좀 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도 계속해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상아동의 부모, 학교, 그리고 정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심 및 노력이 이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